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2022년 GDP 성장률 5.5%내외 달성 목표

- 3월 5일자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여 올해 발전 목표는 GDP 성장률 5.5% 안팎, 도시 실업률 5.5% 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안팎이라고 제시하였음
-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8%로 편성 △지방채권 3조 6,500억 위안(약 708조원) 발행 △위안화 환율 안정성 보장 △대출 금리 인하 △취업 및 창업 정책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우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 △서비스무역과 디지털무역의 혁신 발전 추진,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시행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첨단 제조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분야와 중서부,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 지역 증설 등의 내용이 포함됨

자료원 : 중국 국무원

<https://baike.baidu.com/vbaike/2022/%E5%B9%B4%E6%84%BF/%E5%BA%8C/%E5%B7%A5%E4%BD%8C/%E6%8A%A5/%E3%81%8A/85929>

## 2 中, '양회'에서 5G·데이터센터·인공지능 등 신인프라 건설 지속 추진 다짐

- 신인프라 건설은 올해 '양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신인프라 건설은 5G 기지국 건설, 특고압 송전, 도시간 고속철도, 도시 궤도교통, 신에너지차 충전소,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 7대 분야를 망라하며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체계임
- 정협위원 가도테크놀로지(佳都科技) 류웨이(刘伟) 회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에너지절감 분야 응용, 상장그룹(香江集团) 자이메이징(翟美卿) 회장은 5G, 빅데이터 등 신인프라 투융자 제한 문제, 치후360 저우홍이(周鸿祎) 회장은 신에너지차 분야와 커넥티드카의 보안 문제를 주목한다고 밝혔음
- 서부증권(西部证券) 거시전략 수석분석가 장징징(张静静)은 신인프라 건설은 디지털경제 발전 기반을 다지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5G,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3대 분야 투자규모를 2,210억 위안(약 42.8조원)으로 추산하였음
- 커즈컨설팅(科智)은 2021년 IDC 시장규모를 33.3% 성장한 2,985억 위안(약 57.8조원), 2022년 빅데이터센터 분야 투자규모를 230억 위안(약 4.5조원)으로 추산하였고 아이루이컨설팅은 2022년 인공지능 산업규모를 2,300억 위안(약 44.5조원), 투자규모를 166~180억 위안(약 3.2~3.5조원)으로 예상하였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lianghui/2022-03-05/A1646408193994.html>

### 3 中, 철광석 가격 3개월간 60% 이상 급등

- 올해 2월 하순부터 중국내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여 3월 1일 기준 철광석 선물가격은 톤당 737.5위안(약 14만원)에 달했음. 이에 비추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월 28일자로 다렌상품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철광석 시장의 가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철광석 가격은 2021년 11월 19일 톤당 509.5위안(약 9.8만원)으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하여 2월 11일 기준 톤당 850위안(약 16.4만원)으로 3개월간 가격 상승폭이 60% 이상에 달했음. 한편 2021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0.3억 톤,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1.2억 톤, 철광석 수입가는 톤당 전년 대비 55.3% 상승한 164달러로 집계됨
- 란거(兰格)철강연구소는 철광석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가격 변화를 결정하고 현재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비교적 낮으며, 향후 철강업체가 생산을 회복하면 철광석 수요를 견인하지만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가 최고치이고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

<https://www.163.com/dy/article/H1DLM29S05199NPP.html>

### 4 광둥성, 지난해 교역액 8조 위안 돌파...온라인 소매판매액 전국 1위

- 광둥성 상무청에 따르면 2021년 광둥성의 교역액은 8조 2,700억 위안(약 1,603조원)으로 지난 1년간 1조 2,000억 위안(약 233조원) 증가하였고 소매판매액은 9.9% 증가한 4조 4,000억 위안(약 853조원)을 달성하였음
- 한편 디지털서비스 수출이 30% 증가한 120억 달러이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시장구매무역 규모가 각각 3,000억 위안(약 58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시장구매무역 규모가 각각 7,000억 위안(약 13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 시장구매무역이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가 국가에서 비준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금액 이내의 상품을 지정 해관을 통해 한 번에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새로운 대외무역 방식임
- 디지털무역 관련 △웨이강아오대만구가 글로벌 무역 디지털화 선도구역으로 건설 비준 △서비스무역 고도화 발전계획 제정 △포산시(佛山) 국가 서비스아웃소싱 시범지역으로 선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고, 무역 신유망 업종 관련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건설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시장구매무역 발전 촉진 정책 실시 △7개 종합시범구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지역으로 선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
- 또한 도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행가와 특색 있는 상권을 건설하였고, 중고차 거래 등록 타지역 일괄처리 정책을 시행하여 중고차 거래량이 14.4% 증가한 266만 대를 기록하였음.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0.5% 증가한 3조 3,000억 위안(약 640조원)으로 전국 1위이며 온라인 소비, 라이브 커머스, 스마트 점포 등의 신소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의류, 디지털제품, 뷰티제품 관련 전자상거래 생방송기지 건설을 추진하였음

자료원 : 광저우일보

<https://www.gzdaily.cn/amucsite/web/index.html#/detail/1784469>

## 5 中, 바닥청소기 등 청결가전 시장 빠른 성장세

- 최근 중국 소형가전 시장에서 청결가전 분야가 빠른 성장세이며 주방용 소형가전 기업은 실적이 부진함
  - 2021년 청결가전이 인기로 진공청소기(吸尘器), 로봇청소기(扫地机), 바닥청소기(洗地机)의 판매액은 각각 56.4억 위안(약 1조원), 84.3억 위안(약 1.6조원), 50.3억 위안(약 9,689억원)이며, 이 중 바닥청소기 판매액은 전년 대비 333% 급증, 3년 평균 성장률이 339%에 달했음
  - 주방용 소형가전(12종) 판매액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514억 위안(약 10조원)이며, 이 중 조리기기, 초고속블렌더, 착즙기 판매액이 각각 32.5%, 34.1%, 28.7% 감소하였음
  - 소형가전 분야 다크호스로 불리는 샤오송가전(小熊家电)은 2021년 1~3분기 누적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5.3%, 41.3% 하락하였고 수출 지향성 기업인 신바오주식(新宝股份)은 향후 진공청소기 등 청결가전과 전동칫솔 등 퍼스널케어·미용기기, 영유아용 가전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3/202203011300281042.html>

## 6 중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2.8만 개사로 증가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남방의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산업 매출은 2015년의 6,297억 위안(약 121조원)에서 2020년의 1조 392억 위안(약 20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처음 1조 위안(약 193조원)을 돌파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이 10.5%로 제조업 평균 수준을 상회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생산업체수가 이미 2.6만 개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만 개사 증가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총 2.8만 개사로 1등급, 2등급, 3등급 생산업체수 비중이 각각 8:6:1로 집계됨
  - 의료기기 연간 인증·등록 건수를 보면 최근 3등급 의료기기 연간 인증건수는 1,000건 수준이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건수는 2020년 1만 건을 돌파한 1만 3,636건에 달했으며, 1등급 의료기기 등록건수는 2020년 3.5만 건으로 급증하였음
  -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은 2019년의 555억 달러(수출 287억 달러, 수입 268억 달러)에서 2020년의 1,037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3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마스크, 방호복 등의 해외수요 둔화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3.9% 감소한 615억 달러(수출 444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개별문건자료)